

영광의 당선 뒤 ‘선거법 족쇄’가...

광주·전남고소·고발 사건 581명 수사... 당선인 상당수 포함
검·경, 당원명단 유출·금품수수 의혹 등 조속히 마무리 방침
문무일 총장 공정·신속한 수사 독려... 무고사범도 엄정 대응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을 독려하고 나서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의 영광을 안은 당선인들도 승리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선거과정에서 ‘페어플레이’ 여부를 가리는 검증 수사와 재판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은 다만 고소·고발 사건 중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무고 사범이나 가짜뉴스를 생산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고소·고발인이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광주지검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12일 현재 이번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93명을 입건하고, 75명을 수사중이다. 광주경찰청 62건 73명, 전남경찰청 214건 433명 등 광주·전남경찰은 총 276건 506명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85건 149명, 전남 411건 664명 등이 경찰수사를 받았다.

검·경은 이번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을 비롯한 상당수 자치단체장 당선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우선 4개월여를 끌어온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 대한 당원명단 유출 사건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방

침이다.

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신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선거 이전에 이 당선인을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일정조율 등이 안돼 무산됐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만큼 금명간 관련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경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은 특정인이 선거막판 수년전 금품수수 의혹 등을 갑자기 제기하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 수사대상이 됐다.

또 이승욱 강진군수 당선인은 사전선거법의 등으로 선거 전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며,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인과 정현복 광양시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인은 선거운동원의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구충곤 화순군수 당선인은 이른바 ‘용봉탕 회식’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선거가 마무리되자 검찰청도 선거법 위반 사범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2000여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사범 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되고 특히 거짓말 사범의 입건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 중 일부는 당분간 승리의 기쁨보다는 검·경 수사라는 제2의 당선 허들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은 이번 수사에서 정치적 논리 등을 철저히 배제한 공명정대하고 빠른수사를 통해 민선 7기 지방자치의 조기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거 벽보 수거

14일 광주시 북구 운암4거리에서 운암1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선거 벽보를 수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양 백운산서 반달가슴곰 울무 걸려 숨져

지리산을 벗어나 광양 백운산에서 활동하던 반달가슴곰 ‘개체번호 KM-55’가 울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개체번호 K는 한국(Korea) 출신, M은 수컷(Male)을 뜻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백운산에 있던 KM-55 개체의 위치추적 발신기로부터 이상음이 수신돼 현장 확인한 결과 KM-55가 오른쪽 앞발에 이동형 울무가 걸린 채 바위틈에 숨겨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지리산을 탈출한 KM-55는

삼진강을 건너 최근까지 백운산 일원에서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그동안 백운산 일대에서 불법 염구를 수거해 왔으나, 미처 제거하지 못한 울무가 남아 있어 KM-55가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경찰에 불법 염구 설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주민 협력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노인학대 2년간 7.4% 증가

최근 2년간 광주·전남지역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 전남도,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노인학대 사례는 2016년 229건(신고 480건)에서 지난해 240건(582건)으로, 전남은 2016년 298건(678건)에서 지난해 326건(701건)으로 늘었다. 최근 2년간 7.4%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4280건(1만2009건)에서 지난해 4622건(1만3309건)으로 7.9% 상승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4일 발표한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는 총 5101명으로, 아들 1913명(37.5%), 배우자 1263명(24.8%), 딸 424명(8.3%) 등 친족이 70.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보호기관 관계자도 704명으로 13.8%에 달했다.

경찰청은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06:37
해질	19:48	달지기	21:16

불쾌지수 ‘높음’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다.

광주	맑음	17/25	보성	맑음	15/25
목포	맑음	18/27	순천	맑음	17/27
여수	맑음	18/24	영광	맑음	16/27
나주	맑음	16/28	진도	맑음	17/26
완도	맑음	18/25	전주	맑음	17/29
구례	맑음	14/28	군산	맑음	17/28
강진	맑음	17/27	남원	맑음	15/27
해남	맑음	17/27	흑산도	맑음	17/23
장성	맑음	15/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면바다	동~남동	1.0~2.5	동~남동	1.0~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면바다(동)	북동~동	2.0~3.0	북동~동	2.0~4.0
서부	면바다(서)	북동~동	1.5~3.0	북동~동	2.0~4.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8:28	03:15	20:32	15:16
여수	03:55	10:00	16:01	22:39

◇ 주간 날씨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17/25	19/29	19/31	18/30	19/30	19/30	20/30



◇ 생활지수

	주의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주말·휴일 한여름 날씨...최고 30도 육박

주말과 휴일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한여름 날씨’가 지속되겠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영향과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낮 기온은 23~29도를 보이겠고 16일 낮 기온은 광주의 경우 29도까지 오르는 등 나주 28도, 담양 28도, 화순 28도로 전망됐다. 당분간 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 맑은 날씨 속에 일사가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온도는 30도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햇볕이 강한 오후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광주·전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징역 7년 선고



○법원이 동성 제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에게 중형을 선고.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중과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유명했던 성악가 A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사이 3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의 집을 찾은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이나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062) 362-3336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캐트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펜션건물 맞춤회전 시공 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내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디자인

특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61)683-0485

010-6603-0405

목포 (061)726-0482

여수 (061)795-0485

광양 (061)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